

외신 “탄핵표결 무산, 정치격변 연장...尹정치미래 밝지않아”

美 언론 “정치적 혼란 추가...대통령 사임 요구 증대 가능성”
유럽 언론 “여당 보이콧 탄핵안 표결 무산, 국민 기대 저버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언론은 지난 7일(현지시간)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직무정지는 면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밝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대다수 의원이 표결을 보이콧한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제기됐다. ◇美 언론, 정치적 혼란 지속 예상... “與, 尹행동보다진보재집권 더 우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행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깊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WP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서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WSJ은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는 시카고 글로벌어퍼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AP통신은 “많은 전문가가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그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가 더 커지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유럽언론도 “정치적 혼란 고조될 것...책임문제 조건으로 하야할수도”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며 “수만 명의 시위에도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표결은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짧은 연설은 국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탄핵안이 불발됐다고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분노한 야당 의원들이 “반역자들”이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어 시위대 사이에서도 분노가 퍼졌

다면서, 며칠 밤을 시위에 참여한 한 학생이 “그들이 보이콧으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우리 희망을 막고 있다니 믿기 싫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더타임스는 보수 지지자들이 도심에서 연 집회에서 야당에 반국가 친북 세력이 침투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뒤떨어졌다고 이틀 “한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썼다. 탄핵 불발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취약성을 모두 보여준 격동의 한 주를 거쳐 이번 탄핵안 무산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살아남았지만 그의 정치적 장래가 밝지 않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실시간으로 한국의 탄핵정국 관련 뉴스를 전하는 라이브 페이지에서 “탄핵안 불발은 5년 단임 임기 중 3년에 조금 못 미치는 윤 대

통령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추운 날씨 속에서 수많은 시민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결국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윤석열은 적어도 당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겠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지도부는 다음 주에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정치 시나리오는 이번 탄핵 무산으로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이냐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새로운 탄핵 절차 외에도 윤 대통령이 아마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진 하야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으며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연합뉴스

“쿠데타 시도, 나라 망신”...파리 에펠탑 앞서尹대통령 퇴진 집회

교민 300여명 모여...“민주주의,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던 교훈”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프랑스 교민 300여명은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촉구했다. 트로카데로 광장은 에펠탑 전망 명소로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날 재불(프랑스) 행동시민연합의 박성진 대표는 시국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무도한 친위 쿠데타 시도”였다고 “명명백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런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으로 결정해 표결이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석열의 친위부대이며 내란 공범이며 국민의 적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이 사실상 투표에 불참해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

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날 시위에 나온 유학생 이예빈(25)씨는 “계엄이란 단어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되는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온다”며 “제발 빨리 좀(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단체로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보란 듯이 본회의장을 떠난 자체가 국민을 너무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현장을 찾은 김모(45)씨는 “피가 끓어서 나왔다. 이번 일은 엄청난 쿠데타이고 내란”이라며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와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쉽게 쟁취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동시에 ‘민주주의는 누군가에 의해서 한순간에 뒤엎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교훈 아닌 교훈을 얻었



지난 7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프랑스 교민 3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이 피해당간 걸 생각하면 힘을 합쳐야 할 텐데,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버리니 너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

했다. 시위에 일부 프랑스인도 함께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마야(20)씨는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고, 한

국에 친구들도 있어서 한국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시위에 나선 이들과 뜻을 함께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민주절차-평화시위 보장 중요”
연합 방위태세 여전히 굳건 강조

미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자는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동같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자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다”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각종 혜택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